

(가)

동녘 두던 밭기 크나큰 너븐 들희
 만경(萬頃) 황운(黃雲)이 흐 빛치 되야 있다
 중앙이 거의로다 내노리 흐자스라
 불근 게 여물고 높은 들기 술져시니
 술이 니글선정 버디야 업슬소나
 전가(田家) 흥미는 날로 기퍼 가노매라
 살여홀 긴 몰래에 밤불이 불가시니
 ㉠게 잡는 아히들이 그들 을 훗터 잇고
 호두포* 엔 구비에 아적물이 미리오니
 ㉡뚝든 빙 애내성(欸乃聲)*이 고기 푼는 당시로다
 경(景)도 도커니와 생리(生理)라 괴로오라
 (중략)
 어와 이 청경(淸景) 감시 이실 거시련들
 적막히 다든 문에 내 분으로 드러오라
 사조(私照)* 업다 호미 거즌말 아니로다
 ㉢모재(茅齋)*에 빗천 빛치 옥루(玉樓)라 다룰소나
 청준(淸樽)을 밧썬 열고 큰 잔의 ㄱ독 브어
 ㉣죽엽(竹葉) ㄱ는 술룰 들빋 조차 거후로니
 표연흔 일흥(逸興)이 저기면 놀리로다
 이적선(李謫仙) 이려햐 들을 보고 밧치닷다
 춘하추동에 경물이 아름답고
 주야조모(晝夜朝暮)애 완상이 새로오니
 ㉤몸이 한가흐나 귀 눈은 겨를 업다
 여생이 언마치리 백발이 날로 기니
 세상 공명은 계륙이나 다룰소나
 ㉥강호 어조(魚鳥)애 새 밧세 김퍼시니
 옥당금마(玉堂金馬)*의 몽혼(夢魂)*이 섯기였다
 초당연월(草堂煙月)의 시름업시 누워 이서
 촌주강어(村酒江魚)로 장일취(長日醉)를 원(願)호노
 라
 이 몸이 이러구롬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신계영, 「월선헌십육경가」 -

* 호두포 : 예산현의 무한천 하류.
 * 애내성 : 어부가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랫소리.
 * 사조 : 사사roi 비춤.
 * 모재 : 띠로 지붕을 이어 지은 집.
 * 옥당금마 : 관직 생활.
 * 몽혼 : 꿈.

1. ㉠에는 전원에서의 생활상이 나타난다.
[O / X]
2. ㉡에는 한가로운 자연 속 흥취가 나타난다.
[O / X]
3. ㉢에는 자연현상에서 연상된 그리움의 대상이 나타난다.
[O / X]
4. ㉣에는 운치 있는 풍류의 상황이 나타난다.
[O / X]
5. ㉤에는 변화하는 자연에서 얻는 즐거움이 나타난다.
[O / X]
6. <보기>를 바탕으로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7세기 가사 「월선헌십육경가」는 월선헌 주변의 16경관을 그린 작품으로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읊으면서도 현실적 생활 공간으로서의 전원 에 새롭게 관심을 두었다. 그에 따라 생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풍요로운 결실, 여유로운 놀이 장면,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 등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현장감 있게 노래했다.

- ① 전원생활에서 목격한 풍요로운 결실을 ‘만경 황운’에 비유해 드러냈군.
- ② 전원생활 가운데 느끼는 여유를 ‘내노리 흐자스라’와 같은 청유형 표현을 통해 드러냈군.
- ③ 전원생활의 풍족함을 여문 ‘불근 게’와 살진 ‘높은 들’ 과 같이 색채 이미지에 담아 드러냈군.
- ④ 전원생활에서의 현장감을 ‘밤불이 불가시니’와 ‘아적물이 미리오니’와 같은 묘사를 활용해 드러냈군.
- ⑤ 전원생활의 여유를 즐기면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을 ‘생리라 괴로오라’와 같은 설의적인 표현으로 드러냈군.

7. ㉠은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긍정하지만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O / X]

8. ㉠은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마치고 정치 현실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O / X]

9. ㉠은 '내'가 '강호'에서 경치를 완상하며 정치 현실의 번뇌를 해소하려는 자세를 나타낸다.

[O / X]

10. ㉠은 '내'가 '강호'에서 늙어 감에 체념하면서도 정치 현실을 지향함을 나타낸다.

[O / X]

11. ㉠은 '내'가 '강호'에서 임금께 맹세하며 정치 현실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태도를 나타낸다.

[O / X]

(가)

동녘 두던 밭기 크나큰 너븐 들허
동녘 둔덕(언덕) 밖에 크나큰 넓은 들에

두던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공간적 배경인 동쪽의 넓은 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In 자연 확정)

만경(萬頃) 황운(黃雲)이 흰 빛치 되야 있다
넓은 누런 구름(누렇게 익은 벼)이 한 빛이 되어 있다.

벼가 익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나보다,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다.

중양이 거의로다 내노리 흐차스라
중양이 거의로다 냇놀이(고기잡이) 가져구나

중양이라는 옛 명절을 몰라도 앞에서 가을임을 파악했으면 문제없다. 화자는 냇놀이를 간다고 하는데 물놀이인가?

블근 게 여물고 높은 들기 술저시니
붉은 게 여물고 높은 달이 실져있으니

대구법으로 자연물들이 여물어있고 실져있다고 반복하여 강조한다. 가을에는 낙엽이 지며 쓸쓸할 수도 있지만 추수를 하며 풍요로울 수도 있다. 여기에선 풍요로움이 느껴진다. 게와 달이 실져있으면 먹게 많기 때문이다.

술이 니글선정 버디야 업술소나
술이 익을망정 벗이야 없을싸나

설의법으로 친구가 있음을 강조한다. 술이 나왔으니 풍류적 태도일 것 같다. 앞의 게와 닭은 안주겠군,,

전가(田家) 흥미는 날로 기퍼 가노매라
전가(농가)의 흥미는 날로 깊어가는구나

풍류적 태도로 자연 친화를 드러내고 있다. (To 자연 확정)
(In 자연 → To 자연)

살여홀 긴 몰래에 밤불이 별가시니
살여울 긴 모래에 밤불이 밝았으니

살여울(물살이 깊고 빠른 여울), 몰래, 밤불(밤에 불을 켜고 고기잡이 하는 모습)을 모른다 해도 큰 틀을 잡는 데에 문제가 없었다. 우리는 이미 (In 자연 → To 자연)의 자연 친화임을 파악했다. 또한 시간적 배경은 밤이다.

㉠계 잡는 아히들이 그물 을 훑터 잇고
계 잡는 아이들이 그물을 훑어 있고

호두포* 엔 구비에 아적물이 밀러오니
호두포 먼 굽이에 밀물이 밀려오니

아적물은 밀물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이러한 세세한 것 까지 알 필요는 없었다.

㉡뚝뚝 비 애내성(欸乃聲)*이 고기 파는 당시로다
뚝뚝 배 어부 노랫소리가 고기 파는 장사로다.

경(景)도 도커니와 생리(生理)라 괴로우라
경치도 좋거니와 생활이 괴로우라

설의법으로 생활이 괴롭지 않다고 드러낸다. 경치가 워낙 좋은가보다.
(중략)

어와 이 청경(淸景) 감시 이실 거시런들
아아 이 맑은 경치가 값이 있었다면

적막히 다든 문에 내 분으로 드려오라
적막히 닫은 문에 내 분수로 들어왔겠는가?

자연에 값이 있었다면 자신의 능력으로는 가질수 없었다고 한다. 그만큼 자연의 경치가 뛰어난가보다. 예찬적 태도가 드러난다.

사조(私照)* 업다 호미 거즌말 아니로다
사조가 없다 하니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중부정을 사용했다. 사사로이 비추는 빛이 없다는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

㉢모재(茅齋)*에 빗췌 빗치 옥루(玉樓)라 다룰소나
초가집 처마에 비친 빛이 옥루라고 다룰싸나

설의법을 통해 초가집 처마의 빛과 옥루의 빛이 다르지 않음을 보인다. 자연에 만족중이다. (In 자연 → To 자연) 그런데 옥루가 어딘가? 바로 임금님이 계신 곳이다. 문득 임금님이 떠올랐나?

청준(淸樽)을 밧췌 열고 큰 잔의 ㄹ둑 브어
맑은 술동이 바삐 열고 큰 잔에 가득 부어

㉣죽엽(竹葉) ㄹ는 술를 달빛 조차 거후로니
죽엽 가는 술을 달빛 좇아 기울이니

죽엽주 맑은 술을 달밤에 따라마신다. 시간적 배경은 여전히 밤이다.

표연훈 일흥(逸興)이 저기면 날리로다
표연한 일흥이 저기면 날리로다.

가벼운 흥에 잘하면 신선이 돼서 날아갈 것만 같구나 다시말해 신선이 부럽지 않다는 말이다. 실전에서는 완벽하게 해석을 못해도 된다. 우리는 이미 화자가 술 마시면서 흥겹게 놀고 있음을 읽어 내서 풍류적 태도를 파악해두었으니 시적 전환이 나오지 않는 한 이 태도가 유지됨을 알고 있다.

이적선(李謫仙) 이려허야 둘을 보고 맞치닷다
이적선(이태백)이 이래서 달을 보고 미쳤구나

이태백이 그랬구나. 그런데 이적선이 누군지 아는게 중요했을까? +물론 이태백은 두보와 함께 거론되는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다. 이적선이라는 별명은 글을 너무 잘써서 하늘나라에서 귀양온 신선이 아니냐며 붙여졌다고한다. 술을 좋아했던 이태백이 강에서 뱃놀이를 즐기다 강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전설이 존재하기에 달을 예찬할 때 이적선이 자주 언급된다.

춘하추동에 경물이 아름답고
봄여름가을겨울에 경물이 아름답고

주야조모(晝夜朝暮)에 완상이 새로오니
낮밤아침저녁에 즐겨 감상함이 새로오니

여전히 자연을 예찬중이다. (In 자연 → To 자연)

㉔ 몸이 한가허나 귀 눈은 겨울 업다
몸은 한가하지만 귀와 눈은 겨울(틈)이 없다.

여생이 언마치리 백발이 날로 기니
남은 생이 얼마이리 백발이 날로 길어가니

세상 공명은 계륙이나 다름소나
세상의 공명은 계륙이나 다름없다.

이게 하...가지자니 애매하고 그렇다고 버리기도 애매하다.. 계륙에서 내적갈등을 잡아냈어야한다.

(In 자연 → To 자연+속세)

㉕ 강호 어조(魚鳥)에 새 멩세 깎피시니
강호에서 물고기와 새에 새 멩세가 깎였으니

(In 자연 → To 자연)

옥당금마(玉堂金馬)*의 몽혼(夢魂)*이 셋기였다
관직생활의 꿈이 셋기였다.

셋기다? 섞인건가? 몰랐어도 앞에서 세상의 공명은 계륙과 다름바가 없다고 한 표현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을 잡아두고 처리했어야한다. 화자는 관직에 대한 미련이 존재하는 동시에 자연에 대한 지향도 드러내는 중이다. (Q : 계륙을 몰랐으면 틀리라는 건가요? A : 응 이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제 기능을 한다는 방증이지 '계륙'을 모르는데 국어 1등급 받겠다는게 말이 안됨ㅋㅋ 공부하세요. 이거 계륙 모르면 '셋기다' 알아야 푸는데 논문에 나올법한 고어들 외울건가?)

+섞이다와 셋기다 이 두 개 관점이 대립하고 있다. 평가원은 '셋기였다'로 번역하여 섞이다라고 주장한 논문이 아닌 '셋기였다'로 번역하여 셋기다 라고 주장한 논문을 인용한 듯 하다. 하지만 섞여있거나 스르륵 사라지는 중이거나 결국 그 생각이 존재하긴 한다는 말이다. (한밤중에 치킨이 문득 먹고 싶어졌다가 아 안되겠다 하고 마음을 돌리는 중이라고 생각해보자. 그 생각이 사라지는 중이라 하더라도 일단 미약하게나마 있긴 하다는 거니까..) 따라서 관직에 대한 미련이 있긴 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지문 60~70년 언저리 밖에 안되서 애초에 연구가 덜 된거라고 한다.

(In 자연 → To 자연+속세)

초당연월(草堂煙月)의 시름업시 누워 이서
초당의 달빛아래 걱정 없이 누워있어

(In 자연 → To 자연)

촌주강어(村酒江魚)로 장일취(長日醉)를 원(願)호노라
시골의 거친 술과 물고기 안주로 하루종일 취해있기를 원하노라

촌주강어나 장일취를 몰라도 (In 자연 → To 자연)의 상황은 유지된다.

이 몸이 이리구름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이 몸이 이렇게 굶도 역군은(임금님의 은혜)이다.

내가 이렇게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것도 임금님의 은혜라고 한다. 사대부 아니랄까봐 유교적 질서인 '충'을 놓치지 않는다. (연군지정) 여기서는 약간의 (In 자연 → To 속세)가 드러나지만 큰 주제를 해치지 않으므로 (In 자연 → To 자연)을 유지하자.

- 신계영, 「월선현십육경가」 -

한줄요약

화자는 자연속에서 자연을 지향한다.(In 자연 → To 자연) 또한 작품에서 파악 가능한 시간적 배경은 가을과 밤이다. (중략 이후는 동사로 겨울이 맞지만 실전에서는 파악 불가) 중간에 관직을 언급하며 (In 자연 → To 자연+속세)를 드러낸다. 마지막에 임금님 만세~ 한번 해줬다.

- 문제해설

1. ㉠에는 전원에서의 생활상이 나타난다.

전가 흥미가 날로 깊어간다는 표현 이후에 구체적 생활상이 드러났다. 그 부분이 ㉠이다.

[/ X]

2. ㉡에는 한가로운 자연 속 흥취가 나타난다.

돛단배와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한가롭다고 볼 수 있다.

[/ X]

3. ㉢에는 자연현상에서 연상된 그리움의 대상이 나타난다.

옥루는 임금이 계신 곳이다. 임금님이 떠올랐다는 것은 문득 그리워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대부라면 당연히 따르는 유교적 질서인 '충'이 떠올라야한다.

[/ X]

4. ㉣에는 운치 있는 풍류의 상황이 나타난다.

풍류의 상황을 본다면 시서금주를 떠올려보자.

[/ X]

5. ㉤에는 변화하는 자연에서 얻는 즐거움이 나타난다.

'춘하추동애 경물이 아름답고 주야조모애 완상이 새로오니'를 통해 자연이 아름답고 매번 새롭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번 새롭다는 것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

[/ X]

6. <보기>를 바탕으로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17세기 가사 「월선헌십육경가」는 월선헌 주변의 16경관을 그린 작품으로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읊으면서도 현실적 생활 공간으로서의 전원에 새롭게 관심을 두었다. 그에 따라 생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풍요로운 결실, 여유로운 놀이 장면,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 등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현장감 있게 노래했다.

In 자연 → To 자연

'새롭게'에서 문득 눈치를 챌 수 있었다. 전원에 관심을 새롭게 가진다면 예전엔 어디에 관심을 두었을까? 바로 정치였을 것이다. 아~ 정치를 뒤로하고 자연에 와서 자연친화를 외치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 판단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

- ① 전원생활에서 목격한 풍요로운 결실을 '만경 황운'에 비유해 드러냈군.
벼가 익어서 추수 직전이기에 풍요롭다고 볼 수 있었다.
- ② 전원생활 가운데 느끼는 여유를 '내노리 하자스라'와 같은 청유형 표현을 통해 드러냈군.
넷놀이를 간다는 것은 여유롭게 가능한 것이다. 또한 ~하자꾸나는 청유형이다.
- ③ 전원생활의 풍족함을 여문 '붉은 게'와 살진 '눌은 닭'과 같이 색채 이미지에 담아 드러냈군.
붉은 게와 누런 닭에서 색채 이미지를 확인 가능했다. 동시에 이 둘이 알맞게 익고 살이 찌있는 것으로 보아 가을의 풍족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전원생활에서의 현장감을 '밤불이 불가지니'와 '아적들이 미러오니'와 같은 묘사를 활용해 드러냈군.
밤불이 밝고 물이 밀려오니 현장감이 느껴진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각적 이미지와 역동적 이미지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 ⑤ 전원생활의 여유를 즐기면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을 '생리라 괴로오랴'와 같은 설의적인 표현으로 드러냈군.
화자는 자연의 경치가 이렇게 좋은데 생활이 괴롭겠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다. 이는 설의법이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한편 <보기>에 의하면 '풍요', '여유'를 드러내며 생업에 대한 정서를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때 생업에 대한 정서는 아직 제시가 되어있지 않다. 이 부분은 지문을 근거로 판단을 해야했다. 화자는 게를 잡는 아이들과 물고기를 파는 어부의 모습에서 풍요와 여유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7. ㉠은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긍정하지만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세상 공명은 계륜이나 다름소냐'에서 공명을 갖기도 버리기도 참 애매하다는 이야길하네 결국 내적 갈등이겠구나 하고 화자는 (In 자연 → To 자연 +속세)의 상황이라는 판단을 하자. 그렇다면 충분히 허용가능하다.

[/ X]

8. ㉠은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따차코~~ 정치 현실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O /]

9. ㉠은 '내'가 '강호'에서 경치를 완상하며 ~~정치 현실의 변뇌를~~ 해소하려는 자세를 나타낸다.

매력적인 오답 선지였다. 그저 자연친화니 속세가 싫었겠지 같은 판단을 했다면 바로 이걸 골랐을 것이다.

[O /]

10. ㉠은 '내'가 '강호'에서 ~~늘어 감에 채념하면서도~~ 정치 현실을 저항함을 나타낸다.

[O /]

11. ㉠은 '내'가 '강호'에서 ~~임금께 맹세하며~~ 정치 현실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태도를 나타낸다.

[O /]